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세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평화의 왕-



이준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의 부활은 인류역사의 방향만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실의와 좌절 그리고 허탈감에 빠졌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집단적 공포증에서 해방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환희와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무수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실직, 실연, 건강악화, 사업에 대한 불안 등 악조건이 사라지기 전에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임시적이고 상대적이며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화평의 왕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양심의 살롬을 가져다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항구적인 화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운지 반세기가 넘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족적인 평화가 없다. 계층간의 갈등과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의 긴장은 지금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수준 높은 지도자와 덕망 있는 모사들의 지략도 동원되어 보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진정한 화평은 찾을 수가 없다.

화평케 하시는 이는 오직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는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본질적으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로 도무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넓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교회는 주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이들

한마음 한가족 축제 유니폼 제작

오는 5월8일(목)에 밀알학교에서 열리는 한마음 한가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모든 교인들이 입을 유니폼 샘플을 준비하여 오늘 순례자를 통해 공개하였다. (사진 참조) 유니폼은 성인 2000원, 아동 1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를 위해 교인들을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기로 하고 1~7교구를 청팀으로 8~14교구를 백팀으로 하기로 하였다.

에게 "예수 부활하셨다."고 크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 "마지막 주간"을 연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장애인 주일을 기념하여 에바다부에서 수화찬양의 순서를 맡았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웃도 초대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HAPPY EASTER,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할렐루야

박두호 장로(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모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고통 받으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두운 죽음을 이기시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노래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가브리엘 찬양대가 칸타타 "마지막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사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부활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God is Love..

-성극 공연 오늘 오후 3시10분 웨스트민스터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누군가 질문해왔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묻습니다.
"독..생..자..를 요?... 왜요?.."
"그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거든요.."
침묵 뒤, 어렵게 꺼낸 마지막 말 한마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과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의 '이 · 처 · 럼' 반경은 얼마만큼 일까요?
바로 오늘, 부활 주일
'아이와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신 후 웨스트민스터 홀을 나가실 때 굳이 말로 답하지 않아도 가슴에 담아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2003. 4. 20 바로 오늘, 부활 주일
3시 10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God is Love..」공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 문화와는 구별되는 크리스찬 문화로써 「God is Love..」라는 성극을 통해 세상 것보다 더욱 즐겁고 따뜻한 공연을 온 성도님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성도님을,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파이프 오르간 도착되다

지난 16일(수)에 독일에서 운송된 파이프 오르간이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23일 이전에 교회에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24일부터 오르간 회사에서 파송된 기술자 6명이 작업에 들어간다. 8월말까지 오르간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 사고 없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서울강남노회 제32회 정기회 개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32회 정기회가 오는 5월6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총대로 이종운 목사의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 오정수, 성준경, 이영기, 왕경래, 하영수, 박두호, 민순구 장로를 파송한다.

우리교회는 장로 10명 선출을 노회에 청원한다.

은빛은 금빛이어서 백철훈 장로(11교구, 당회서기)



해방전후만 하더라도 유권순 누나를 빼고는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아!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온갖 서러움과 한이 한국의 여인들에게 꽃혀있었습니다. 여성해방, 여성의 권리는 말도 못 꺼내던 시대였습니다. 그 삶 속에서 6.25를 겪어 경제적으로 가난과 억압과 혼란에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귀신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옥함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여인에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숨죽이며 살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여인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빛 축복이 아닙니다. 금빛 축복입니다. 아니 별의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찬양해야 하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죽음이 올 때 까지 찬양이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그 인자한 모습과 은혜와 감사의 표정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은빛 찬양대는 찬양할 때 빛이 납니다. 금빛이 납니다. 별처럼 빛이 납니다. 영원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빛 찬양대여 그대는 금빛이여라.



예수 다시 사셨네



서울교회에서 맞는 첫 부활절
이수련 집사(1교구 16다락방)

늘 감사함으로 맞는 부활절이지 만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감사로 다가온다. 여태껏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온 가족이 다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가까운 곳에 말씀이 풍부한 교회가 있어 마음껏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4년 전에 대치동으로 이사 왔다. 이사 와서도 우리 가족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고 15년간 섬겼던 경기도의 교회를 3년간 계속 섬겼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딸아이는 피곤해서인지 깨워도 도로 잠들기 일쑤여서 예배시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해졌고 나는 나대로 새벽기도도 구역예배도 교회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만 간신히 성수하는 생활의 연속에 만족감도 감사함도 없었고 몸은 몸대로 지쳐만 갔다. 아들도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인지 무척 지루해 보이는 눈치였다.

딸이 어느 날 "엄마 저를 위해 서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안돼요? 저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받아야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집 근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던 중 평소 우리 부부가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던 서울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등록을 하였다. 새가족부를 수료한 후 지금은 요리문답반 기도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딸과 아들이 안정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남편이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며 주일날 요리문답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며, 저녁예배도 참석하는 등 아주 멋진 남편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지금도 나와 같은 갈등과 곤고함, 새로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교회를 조심스레 살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새가족부 요리문답반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고 다짐해본다.

나는 성격상 인내심이 부족하고 소심하며 계다가 약간 게을러지기 쉬운 성격인데 그 까닭에 봉사를 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도 힘들 일도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가 짚으신 우리의 허물을 인함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서울교회에서 맞는 첫 부활절!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제2의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로 하려한다.

이 기쁨과 감사가 매년 변치 않고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 홍지영(13교구, 초등학교4학년)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무척 궁금하다.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목사님의 설교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도 믿는다. 물론 다 이해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나도 부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거나 마귀는 뜨거운 불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기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그것이 부활절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장애인 주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서울교회



장애인을 위로하는 교회 가 되길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담임)

서울교회에 장애인 부서로 사랑부와 에바다부가 있어 함께 예배드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느 단체보다 장애인들을 위해 복음뿐만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장애인들을 감싸고 위로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벽을 허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일인 오늘 하루뿐 만 아니라 늘 장애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농인들이 수화로 대화를 하면 이상한 광경을 보는 듯 물려와 구경하고 신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어디서 수화를 해도 자연스러운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에 장애인 부서가 생기면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서로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서울교회가 교회설립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

고 있으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외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농인 50명 전도, 전문 통역사 10인 양성 배출과 교도소 선교로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바다부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제적 농인이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기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교회 교우들이 농인들에게 간단한 수화인사라도 하신다면 더욱 친근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다부가 이 만큼 성장할 수 있기 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협력 때문입니다.



사랑부가 벌써 13살입니다. 신호순(사랑부 학생)

나는 사랑부 학생입니다. 지금은 27살입니다. 주무재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부에 갔을 때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서울교회 사랑부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나는 사랑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교회 사랑부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사랑부에 갑니다. 사랑부에 가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사랑부에서 배우는 예수님 노래가 좋아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성경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우리를 식당에서 밥을 먹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8일 밀알 학교에서 만납시다

▶1994년 제2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교회는 창립 후 지난 1993년부터 전 교인이 참가하는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의 대규모 가족올림픽을 개최해왔다. 여러 교구를 크게 두 팀으로 나뉘 각 종목에 걸쳐 경기를 하는 행사로 온 교인이 함께 어울리는 신명나는 사랑의 잔치라 할 수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주로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려왔다. 싱그러움 녹음이 우거질 때쯤 온 교인이 예수 안에 한가족으로 모여 함께 소리 내어 웃고 땀을 흘리며 힘쓰는 그 모습은 서울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지금까지 열렸던 네 번의 대회에서는 이어달리기나 다중축구시합과 같은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모텔처럼 걷기’나 ‘무지개 따오기’, ‘아마겟돈 전쟁’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경기도 열렸다. 지난 2000년에 열렸던 한마음 축제에서

▶1993년 제1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체육대회



는 ‘전교인 사랑나누기’와 성경퀴즈, 4행시 짓기, 그림 그리기 등 주일학교 자녀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이벤트도 함께 꾸며졌다.

교구별로 응원전도 치열하다. 행사 때마다 펼쳐지는 조직적이고 합심하는 가장행렬과 응원모습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온 가족과 교인이 한데 모여 화목의 시간을 가지는 데에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의 큰 의미가 있다. 올해도 온 성도가 푸르른 들뜬에 한데 모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나눔의 공동체 서울교회의 모습을 만끽하며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민철(편집부)



▶1993년 제1회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000년 제4회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편지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중윤 목사님께 주의 은혜 중에 간절히 문안과 소식을 전하여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두루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이식수술’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4월21일(월)에 입원하여 이틀간 마지막 가장 강력한 항암치료를 받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암세포를 멸종하고 23일은 잘 쉬고 24일(목)에 이식을 받습니다.

그 후에 힘들고 긴 적응의 위험한 단계를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3~4주간 입원하여서 긴박한 안정을 받은 후 퇴원합니다.

약 한 달간 잘 요양하면서 8월초에는 서울에서 목사님을 뵈고 선교지로 돌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좋은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열린 신학원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에서
선교사 홍의만 올림.

동정

■ 이중윤 목사는 홍순복 사모와 함께 21일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지역 장로 연합회 주최 성회를 인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미시간주 앤 아버 한인교회에서 설교한 후 LA를 거쳐 5월1일 귀국한다. 목사님의 영력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부임: 최학인 장로(5교구) 인제 축협동물병원장으로

■ 이사: 이재권 장로 김연옥 집사 가정(1교구) 대치3동 현대 apt 107-1605

최규초 집사 노순례 집사 가정(2교구) 삼성동 121-37 301호 564-9575

조봉석 성도 김송자 성도 가정(12교구) 용인시 모현동 동림리 99 031-339-3459

■ 금주의 식사: 정인주, 김정애 집사 가정

■ 떡, 달걀 제공: 서울교회 장로의 일동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나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